

엠티 히트머의
L

미주주의의 저마 L L O

그리고 시지 피이 셔머
L L L L L

Walt Whitman

정우 역
L L L

주 근옥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석사)
대전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박사)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 겸임교수, 충북대학교 전 강사
저서: 「한국시 변동과정의 모더니티에 관한 연구」(시문학사: 2001), 「석
송 김형원 연구」(도서출판 월인: 2001)
시집: 「산노을 등에 지고」(시문학사: 1987), 「감을 우리며」(시문학사:
1988), 「번개와 장미꽃」(새미: 1998), 「바퀴 위에서」(시문학사: 2001),
「갈대 속의 비비새」(현대시: 2002)

번역:

A.J.Greimas, Structural Semantics
A.J.Greimas, On Meaning
Algirdas Julien Greimas, Jacques Fontanille, The Epistemology of
Passions
Cynthia Whitney Hallett, Minimalism and Short Story
Warren Motte, SMALL WORLDS—Minimalism in Contemporary
French Literature
Warren Motte, Jacques Jouet's Soul
Stephen Crane, The Open Boat
Amy Hempel, In a Tub
Amy Hempel, In the Cemetery Where Al Jolson is Buried
Mary Robison, Kite and Paint
Ernest Hemingway, Hills Like White Elephants
Walt Whitman, Democratic Vistas
臼井吉見(うすい よしみ), 形式主義文學論争

기타: 주근옥의 문학세계—환원적 다원성의 생동감
공저(김용직 송재영 홍희표 이승원 구수경 송기섭 송기한 장수익 최예열
금동철 김현정 남기택 윤종영 김윤정 김승민 김교식 민명자 박슬기 林陽子)

홈페이지

한국어: <http://www.poemspace.net/>

프랑스어: <http://www.illustrer.net/>

영어: <http://www.clinamen.co.kr/>



에즈러 파운드(Ezra Pound)가 1909년의 평론 “내가 휘트먼에 대해서 느끼는 것(What I Feel about Whitman)”에서 휘트먼을 “나의 정신적인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음을 상기하면서, 石松 金炯元의 “民主文藝小論(生長 제3호, 1925. 3)”의 토대가 되었던 이 원고를 나는 비매품으로 공개한다.

2013. 08. 12

민주주의의 전망(展望)



(문학마을 통권 40호 2009 가을호)

휘트먼(Walt Whitman) / 주근옥 역

우주에 있어서 자연의 위대한 교훈은 변화와 자유의 교훈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세계에서의 위대한 교훈 또한 정책과 진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사람이 현대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터키에서 아직 후손에게 전해지는 것이 지연되는 것으로서의 고대 아시아의 의례와 같은 또 다른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특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면, 그는 미래의 자유에 기초한 John Stuart Mill¹⁾의 심오한 에세이에서 그러한 것들의 가치를 발견

1) Encyclopaedia Britannica, 1996 ed., s. v. "John Stuart Mill." 영국의 역사학자, 경제학자, 철학자(1806~1873). 19세기 영국 경험론의 대표적 철학자로서 歸納法을 대성. 영국의 사회주의 이론의 아버지라고 불리어지는 한편, 자유주의 경제학의 최후의 자리를 지킴. 저서로는 "경제학 원리", "자유론", "부인론" 등이 있고, 그리고 그는 논리학을 점유하고 있던 폭넓은 철학적 문제에 대하여 썼으며, 1865년에 그는 "William Hamilton 경의 철학에 대한 검토"와 "Auguste Comte와 실증철학"을 출간했으나, 두 저서의 저술 동기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그것은 그가 영국에서 굳건한 요새로 일컬어지고 있는 직관철학을 William Hamilton의 저술 및 언급과 관련시켰기 때문이다. Auguste Comte와 견해를 달리하여, 그는 일찍이 Auguste Comte가 주장했던 실증철학의 이념과 또 나중에 언급한 인류종교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러나 Auguste Comte의 이념에 대해서는 전에 자주 했던 것처럼 칭찬했다. 왜냐하면, 그 이론이 George Berkeley와 David Hume의 견해인 "進化"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인류종교를 공격한 이유는, 단지 인류의 고통을 신성한 교권체도로 속이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의 주장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Jeremy Bentham과 James Mill의 주장에 많이 근접해 있는 것으로 주목될 만하다. 그리고 1869년에 그의 부친이 출간했던 "사람 마음의 현상"에 추가 예제와 각주를 달아주는 호행으로서 나타났다.

James Mill(1773~1836): 영국의 경제학자, 철학자, 대표적 자유주의자로 당시의 벤담주의,功利주의의 보급에 공헌하였다. John Stuart Mill의 부친.

Jeremy Bentham(1748~1832): 영국의 철학자, 법률학자, 경제학자. Adam Smith에 사숙. 공리가 모든 행위의 궁극의 원칙이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주장. 법학자

할지도 모른다. 진실로 위대한 애국심을 위하여 그는 두 가지 주요 성분 또는 근본을 요구한다. 첫째로 개성의 다양성, 둘째로 수없이 충돌되는 문제 속에서 스스로 확대시키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위하여 벌이는 모든 활동이 그것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향과 권력, 공헌, 기질, 반대의 목적, 복제가 복제를 낳는 이 영속 행위는 끝없는 복원과 생명력을 가져와 변천이라고 일컫는 영향력처럼 보편적 인간성이 되는 듯하다. 이러한 생각은 나로 하여금 사색하도록 하며 이러한 생각은 결코 혼자만도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강요하고 뒤에서 잡아당긴다.

봉건주의를 포함하여 과거를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가장 위대한 활약과 문제들로 채워져 있는 미국은 내가 미래를 거의 전적으로 정당화하고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중요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누구를 위한 성공이라고 주장하는가? 부당한 희망은 없다.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아직은 희미하지만, 우리는 풍부하고 건전하고 거대한 결과로서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세계를 위하여 나는 앞으로 다가올 결과보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 현재의 신세계가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 중에서 유일한 이 연방은 민주주의 공화국 원리와 자유의지의 기본 그리고 자존으로 이루어진 발전과 완벽성의 이론이 실천된 실제적 세계의 운영과 윤리적 정치적 사색에 충분히 맞서는 부분에서 영속적인 권력과 실용성의 형식 안에 놓인 과업을 떠맡았다. 사실 이제까지는 이 연방이 외의 역사 속에서 무의식적인 신뢰를 어느 누가 받아왔으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망하고 자립하고 행동하고 방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느 누가 받아들여 왔는가?

그러나 서두에 짧게 다음과 같은 기질의 요점을 쓰자. 첫째, 각기 폭넓게 다른 시대에 쓰여져 왔던 추이를 전제로 한다. (사실 그것은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나 이해하는 사람들의 몫일 것이다) 그리고 일부 반박하는 또 다른 책망으로 개방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커다란 여느 의문과 마찬가지로 민주

로는 자연법사상에 반대하고, 경제학자로는 철저한 자유방임논자임. 저서로는 “도덕 및 입법의 원리” 등이 있음.

William Hamilton(1788~1856): 영국의 철학자. 스코틀랜드 常識學派의 최후의 대표자로 불림. Reid 등의 심리주의를 칸트 철학에 의해 수정함. 그의 논리학에서는 판단론을 두 개의 집합 사이의 양적 관계의 이론으로 다루어 뒷날의 기호 논리학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저서로는 “형이상학·논리학 강의” 등이 있음.

주의에 대하여 품고 있는 커다란 의문의 반대편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의 성취와 신념 안에서 조화롭게 융합된 일부분을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일치 안에서 각각의 사건과 각각의 주장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수정되고 조율된 주장만이 읽혀지도록 그것들을 표현한다. 역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러한 주장들은 정치적 통찰 안에서 연구된 결과가 아니고, 오직 관망과 사람들 속에서의 방황과 이들 연방 그리고 전쟁과 평화가 소용돌이치는 세월 속에서 얻은 근본적인 인식이다. 나는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통선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위협에 대하여 아전인수격으로 주석을 달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것은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위협을 인정하고 직면하기도 한다. 그들의 사고 안에는 전쟁과 진보와 민주주의적 신념과 포부, 그리고 국민적 천성과 부도덕과 자유분방하고 공상적이며 순간적인 충동을 모든 사람에게 불러일으켜 들끓게 하는 열망이 들어있다. 나는 주로 이러한 에세이를 쓸 것이다. 나는 전환될 수 있는 양식으로서의 미국과 민주주의라는 어휘를 사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논쟁거리가 아니다. 미 연방은 봉건제도의 호화로운 역사와 시대의 가장 엄청난 실패로 판명된 것 까지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운명 지워졌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성공하리라고 하는 전망에 대해서 나는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않는다. 지리적 또는 생산적 부문에서 그들의 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리라고 예상되는 미래는 전보다 규모가 크고 더 다양하리라는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 공화국은(이미 실행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공급된 모든 역기능의 실례들을 즉시 제거해야만 한다. 그리고 세계를 제압해야만 한다.

나로서는 비록 정치적이고 직업적인 독자와 일반적으로 훌륭하다고 믿어지는 법령과 실재적으로 풍요롭고 성실하다고 믿어지는 정치체도를 자유로이 조직하는 것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하고 중요한 우월성을 그들 스스로 실행하고 결정하고 민주주의의 체험이 성공의 결실을 낳는 것과 같이 폭넓게 퍼져있는 현혹에 반하여 이러한 것들이 최대의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경고하고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이러한 우월성, 일찍이 두려웠던 적들과 싸워 쟁취한 바로 그 승리로부터 유래한 연방(즉, 그 안에 내재된 우월성)과 전례가 없는 물질적 진보로서의 사회를 완전하게 거의 완전하게 소유한 우월성은 해독이 끼쳐지고 비참해지고 미신적이게 되고 부패하게 된다. 정치적 또는 법치사회는 개인적이거나 또한 자유의지를

가진 사회이다. 어느 면에서, 미연방과 개인의 가장 중요한 척추로서의 도덕적 양심의 기본은 나에게 전적으로 부족하거나 심각하게 악화시키거나 성장을 억제시키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의사가 어느 깊은 질병을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형세에 처해있는 우리의 시대와 국토를 면밀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관찰해 왔다고 믿는다. 어쩌면 미연방의 외관보다 내심이 더 공허했는지도 모른다. 미연방의 기본 원리는 지혜롭게 믿어지지 않고(예나하면 이 모든 것들은 흥분되어 있고 멜로드라마와 같이 아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도 믿어질 만한 휴머니티가 없다. 통찰의 눈은 그 얼굴을 통하여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바라볼 수가 없지 않은가? 그 광경은 간담이 서늘할 만큼 굉장하다. 우리는 위선의 분위기 안에 살고 있다. 사내는 계집 안에 계집은 사내 안에 존재함을 사람들은 믿지 못한다. 경멸로 파악있는 거만은 문학을 규제한다. 모든 문학의 목적은 흥미를 만들어내는 어떤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수많은 교회와 종교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음침한 환상은, 종교의 명성을 박탈한다. 설교는 야유의 덩어리이다. 정신 속의 허위와 모든 오류 행위의 근원으로부터 발생된 결과는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워싱턴의 세수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예리하고 솔직한 사람들은 비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동서남북 사방의 도시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점검과정에 의해 지도 받고, 그들의 직발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왔다. 우리나라의 관료계층의 비행은 상상했던 것보다 적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수없이 더 많다. 사법부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가, 주, 그리고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국의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타락, 뇌물 수수, 기만, 실정(失政) 속에 흠뻑 젖어있다. 그리고 사법부도 오염되어 있다. 대도시들은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없는 강탈과 갱들만큼이나 실제적으로는 존경의 범벅이 된다. 세속의 생활 속에는 경박스럽고 열의 없는 연애사건이나 연약한 무신앙인이나 하찮은 목표 또는 아예 목표가 없어 오직 시간만을 죽일 뿐. 현대의 어휘 비즈니스를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이 모든 것로서의 직업 속에서 유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의미에서는 황금의 획득이다. 동화 속에 나오는 마법의 사탄이 다른 사탄을 모두 먹어치우고, 황금을 만드는 것은 오늘날 그 분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주인 마법의 사탄이다. 우리가 보여주는 최상류층은 세속적으로 투기꾼과 속물로 옷 입혀진 한 무리일 뿐이다. 사실, 이러한 환상적 코미디 뒤에 숨어있는 진실은 사

회의 실제적 무대 위에서 고정적인 사건과 엄청난 고통이 발견되고, 자연 그대로 존재하고 시대 안에서 그들 자신을 약진시키고 언급하는 배경 속에서 계속 진보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그 진실들은 고통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성취한 신세계의 민주주의가 물질적 성장과 생산 속에서, 그리고 완벽하게 고도로 현혹시키는 허울뿐인 민중의 지성 속에서, 이제까지 사회적 관점과 실제로 위대한 종교 윤리 문학 그리고 심미적 결과로서의 거의 완벽한 실패 속에서, 민중이 그들의 허물을 벗고 정신적으로 양양된 것은 위대한 성공이라고 언급한다. 우쭐거리며 우리는 식민지적인, 고대 알렉산더의 지배를 뛰어넘어 또는 로마의 가장 자랑스러운 지배를 뛰어넘어 보다 뛰어난 통치를 향하여 전례가 없는 활보로 전진한다. 우쭐거리며 우리는 합병된 텍사스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북쪽 캐나다로부터 남쪽 쿠바에 이르기까지 점유하게 된다. 여하튼 우리가 거대하고 점점 더 완벽하게 명명된 육체를 부여하고, 따라서 거의 적게 또는 전혀 정신을 뒤에 남겨두지 않는 것처럼.

윤리 또는 현미경으로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인간성을 사용하는 엄격한 양심의 눈앞에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고해하라. 메마르고 평평한 사하라와 같은 사막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성질의 이 도시들은 사소한 우스꽝스럽고 기이한 모습과 환상으로 꼭 차 있고, 무의미한 어릿광대의 모습을 연기한다. 상점에서 그리고 거리와 교회와 극장과 술집과 사무실의 의자이든 어디에서든 경박함과 야비함과 얄은피와 불의와 연약한 유약성과 뻔뻔스러움과 멋을 부리는 것과 조숙하게 무르익은 청년기의 어디에서든,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 비건강한 형식 남성 여성 그려지고 덧붙여지고 염색된 속발의 머리채와 진흙투성이의 외관과 불순한 피와 더럽히거나 더럽혀진 위대한 아메리카를 위한 속된 피, 아름다움에 대한 피상적인 관념, 예질의 한계 또는 반대로 예질의 결핍(지금까지 누려왔던 이점을 고려해서) 세계 속에서 십중팔구는 가장 뒤져 보이는 후진성과 같은 이 모든 것을 어느 곳에서든 고해하라.

합리적이고 용감한 삶으로 회복시키는 숨결을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이 한스러운 상황들에 불어넣기 위하여, 단지 복사하거나 존재의 표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또는 취미로 불리는 단지 위안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아름다움과 고상함과 과거를 찬양하기 위하여, 표면상의 기교적 운율적 문법적

교묘함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선동하기 위하여, 나는 새로이 발견된 문학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러나 삶과 종교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과학과 모순되지 않는, 기본원칙을 조종하고 유능한 힘으로 강제하며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문학, 그리고 이들의 놀라운 결합과 우둔 또는 여자들의 모자와 같은 빈 껍데기를 버리고 전 국민의 구원을 성취시키는 십중팔구 가장 중요한 결과로써, 여러 종류의 소화불량성의 소멸은(따라서 강력하고 상냥한 국민의 대표, 완벽한 미국의 대표를 국정에 참여시켜 책임을 지게 하는)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실과 관점으로 충만 된 개념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찬성과 반대(아직 兩姓과 개인적인 사고까지도 포용된 미국의 민중이 활동하는 본래의 영역 안에서의 명백한 신념과 함께, 그리고 그들 속에서 가장 훌륭한 문학과 윤리적 인식의 폭넓은 기본적 인식까지도)를 암시하는 모든 것을, 나는 나의 사색과 전망과 함께 출발한다.

이제부터 문명의 땅은 유일한 억압과 유일한 권위가 없고, 신분 높은 작가가 선호하는 기준에 의해, 가장 훌륭한 사람의 법에 의해, 타고난 영웅과 종족의 우두머리(일찍이 또는 백 년 전의 어느 시대에 중요한 지위와 선거나 역동성을 마치 지배했던 것처럼), 그러나 가장 높고 권위가 있는 법보다도 더 높은, 개인과 함께 시작하고 그들 자신의 법으로 다시 끝을 맺는 그들의 모든 지위를 통하여 공동체를 단련시킨다. 주로 그리스도는 절대 정신을 존경하는 인류를 위하여 심미적 정신적 분야에서 각각 단순히 개인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소유 목록 안에 매우 초월적이고 변화에 매우 무감각한(인생처럼) 어떤 무엇이 있다. 그 범주 안에 그것은 이지, 미덕, 신분, 또는 어느 정점 또는 겸손한 무엇과 전적으로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수준에 모든 존재를 위치시킨다. 사람, 국가, 그리고 삶의 정체성이 보편적으로 결집된 것처럼 속세의 성공과 행복과 성장을 위한 공평한 기회와 시민정신의 보호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각각의 분류와 완전한 주제를 부여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하여, 이곳에 또 다른 분야가 습관처럼 부합된다. 그리고 선거권과 투표의 정치적 한계가 있어야만 한다. 만약 더 이상 없다면, 개체 또는 전체 안에 하나의 명백한 기초와 보편과 일반 강령이 자리잡게 된다.

또한 민주주의는 가장 엄격하고 가장 폭이 넓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원리이다. 사람들은 그 안에 결점이 있다고, 그리고 민주주의는 법칙을 버리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간단히

말해서 민주주의는 우수한 원리이며, 단지 물리적 힘이나 껍데기의 육신만이 아니며, 여기에 더하여 정신으로 대신 채워져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질서이며, 모든 것들의 원리 모든 원리들의 원리이며, 상속된 원리인 것이다. 이 시대에 있어서 우수한 원리로서의 이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열등한 것들을 압도하고 그 지위를 대신한다. 반면에 나 자신을 위하여 나는 기꺼이 동의한다. 발전하는 경향은 적어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선에서 관리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건은 엄밀히 해석되어야 하는 첫 번째 계약이다. 개인적 또는 공동체적 외형이 나타날 때까지, 권위 있는 후견이 지속될지 모르며, 정부 자신은 그러한 시대를 지속시켜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항상 심미적 관점뿐만 아니라, 고고한 정신적 목적을 위한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보통의 야망은 특권이 주어지고 배타적인 무엇이 되기 위하여 약간 높은 곳을 팽팽히 유지한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민중 속에서 위대성과 긴장성을 바라본다. 공통의 입장만큼 잘 이행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여러분은 이렇게 신성하고 막대하고 보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면 그 속에 여러분 자신을 몰입시키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들의 위에 있는 민주주의는 가장 매력적인 기념물이며, 모든 인류와 다양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영토를 형제관계로 한 가족으로 유일하게 묶을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묶어왔다. 민주주의는 가장 나이를 많이 먹거나 가장 젊은것을 초월하여 아직도 지구상에서 현실적인 꿈을 간직하고 있는, 그가 좋아하는 철학자이자 시인이며 원로이다. 민주주의는 결코 개성을 절반으로 분리시키지 않는다. 또 다른 반쪽은 부착력과 사랑이 강력하고 모든 것을 녹이며 끈으로 묶고 집합시키고 인류를 동지로 만들고 모든 것들을 형제와 같이 친하게 사귄다. 그렇게 포용된 것들은 신앙심에 의해 생명이 주어진다. 인류와 국가에 있어서 유일하게 최고 가치가 있는 승강기로서의 민주주의는 공지와 육체와 생명체의 활력으로 숨을 쉰다. 왜냐하면 내가 언급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핵은 결국 신성한 원리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찬란한 아름다움과 전망으로 옷 입혀진 민주주의의 체제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우수하고 가장 늦게 맺히는 과일 즉 정신으로 충만 되어 출현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일부를 유럽 쪽, 특히 우리나라보다 영국에서 그 일부를 참고하여 기술할지도 모르는데, 그 이유는 우리 미국인에게는 전적으로

영국의 민주주의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의문은 앞뒤가 들어맞고, 모든 국민을 단단히 엮어매고 연결시킨다.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은 구시대 또는 중세를 뛰어넘는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원리는 개별화뿐만 아니라 보편화를 추구한다. 이 위대한 언어 “은둔자(민주주의)”는 소생되었다. 우리 시대에 상존하는 국가의 모든 위험은 긴장된 출발점의 안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국민의 확실한 상속 재산인 민주주의보다 더 많을 수 없다. 그 위험은 다른 어떤 것처럼 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지위가 떨어지게 되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가치가 없게 만들어진다. 물론 민주주의의 일면일지라도 많은 엉터리 치료법이 있다. 그러나 아직 그것들은 민주주의의 전체의 특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 엉터리 치료법을 민주주의 안에 섞어 넣고 이상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의 신성한 집합체인 국민을 정당화해도 좋다면(또는 진짜 뿔과 꼬리가 달린 악마인 민주주의의 집합체를 만약 강력히 주장한다면) 나는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언급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아메리카를 의미한다고 또 다시 언급한다. 만약 언급하지 못한다면, 못하였다면? 만약 그렇게 언급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더 이상 아무 것도 의미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 광대무변한 가치에 의해, 썩지 않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의 기운이 항상 발생하는 질병원인 물질을 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회피하지도 않고 진실로 멀리 있는 것을 직관적으로 끌어당기기도 하지만 가장 고고한 관습과 삶을 위하여 자양분으로 기여 변화하기도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이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험은 서쪽 산들바람을 타고 유럽 대륙으로까지 전파시킨다.

그리고 진실로 무엇이든지 어느 문명국가에서든지 폭넓은 민주화의 설립 이론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요약된 논쟁의 방식으로 언급될지도 모른다. 많은 고통이 이 명백한 사실에 의해 전 유럽대륙에 축적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민주화의 몇몇 형식은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자원이다. 왕조에 대한 불만, 머지않아 그리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가장 순조롭게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 중대 고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충격과 왕조의 몰락이 있을 때까지 해마다 그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진다. 구시대의 세계에서 정치적 수완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들이 진보된 학생들과 숙련공들과 수재들 사이에서 오늘날 토론 없이 군주국화를 계

속 시도하고 있거나 민주화를 고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느 계층과 어느 정당에서 가장 신중하게 민주화를 고대하고 있는가 나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미연방에서의 자유주의의 진정한 위력은 일반 부동산과 일반적 평온, 막대하게 얽혀 있는 부의 망상조적인 그 재산의 소유권을 더 많이 확보하게 만들 것이다. 사실, 인간의 구조로서 이 다양한 인간 세계 안에 있는 어떠한 대상이라도 스스로 갖고 있는 응집력의 순수한 경이와 필요성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행과 유익성에 의해 함께 최적하게 지켜진다. 그러므로 훌륭하고 다양한 그리고 수백만 마일을 점령하고 있는 국민성은 보통의 재산 소유자들이 모여있는 전체의 안전과 인내심의 원리에 의해 단단히 붙잡히고 결합되게 만들어진다. 문학도 마찬가지로 어떤 열망과 함께 잘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행히 그 씨앗은 이미 잘 뿌려져있고, 이제는 잘라낼 수 없는 뿌리로 깊이 자랐다.

아직 미국은 윤리적으로 예술적으로 창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미국은 인물과 저서와 관습 등의 모델을 유별나게 모르고 있는 듯하다. 현재 미국이 처해있는 상황과 유럽 대륙을 위하여 충당되는 것은 오직 추방과 이국적이라는 것뿐이다. 미국 사회가 권위적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표면 위에 비추어진 현재의 미국인은 사회적 또는 탐미적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거나 그 상황에 빠져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경향은 바로 그 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다. 구세계에서의 외관과 양상은 순전히 비정신적이고, 전적으로 세습 계급의 관념 위에 그리고 단지 껍질로만 획득된(결코 유창하지 못하고 경쟁적이지 못한) 그것들이 오늘날 미연방공화국의 표면에 현존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이 표본으로 우두머리로 치켜 올려져 있었다. 현대인의 담화는 이러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바로 문화적 담화이다.

우리는 의외로 적과 함께 숙영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러한 담화문화, 또는 대비와 모든 주제들에 의해 포함되고 상징되어온 것들은 사실 약속되도록 재촉하는 동기였다. 어떤 문제들이 떠오른다. 거만한 이교도의 계층을 서둘러 창조하는 문화의 과정은 교육되거나 수용되거나 실행되지 않는다. 누가 믿지 못하는가? 무수히 많은 민중 속에서 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말 것인가, 그리고 이에 관련되어 그의 모습이 만들어질 것인가, 한편 단순히 훌륭하고 건강하고 용감한 인간으로서의 일부분이 삭감되고 잘려 나가

고 말 것인가, 마치 마당 한 구석에 방치된 껌처럼. 당신은 옥수수과 장미를 재배하고 과수를 기를 수 있다. 그러나 누가 산의 정상과 바다와 구름의 멋진 조화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인가? 끝으로 쉽사리 얻어진 대답은 그 담화 문화가 국민을 조직화하고 돕기 위하여 애를 써야만 하고 기본적으로 성장시키려는 능력과 단호한 반응과 태도를 보아야 한다는 것인가?

나는 그 명칭 그 담화에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가려고 하는 계층 안에, 급진적 변화의 범주 안에 처해있는 이 나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분명히 역설하여야만 한다. 나는 일부 계급을 위하여 또는 응접실과 강의실을 위하여 요구하지 않고 선택된, 그러나 실생활에 있어서의 안목과 함께 서부의 노동자 농업노동자와 기술자, 폭넓은 여성계층 또는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그리고 완벽한 여성 평등과 위대하고 강력한 애국심(모성애)을 비교 검토하여 문화의 프로그램을 요구하여야만 한다. 나는 가장 폭넓은 인간 영역을 일반적으로 충분히 포함시킨 범위로서의 이 프로그램과 이론을 요구하여야만 한다. 형식적 개성의 형성은 인간의 상위 수준의 관습에 적합한 중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민중에 부적합한 조건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미국에서 모든 국민을 위하여, 우리는 동양적이며 봉건적이며 고대 아테네의 시민 회의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으로부터 고도의 개성 존중의 형식을 전적으로 다시 고쳐 만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아직 심사숙고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 영상적이고 멜로드라마적이며 상상적이며 심미적인 미국에 있어서의 모든 분야를 포용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그러한 분야들은 서글픈 일을 만들어내고 이상한 시대착오가 우리 주위를 절박한 위기의 상황으로 빠져들게 한다. 물론 그 낡고 죽지 않는 원리들은 살아남는다. 과제는 오늘날 그 낡은 원리들을 성공적으로 새로운 결합에 적용하도록 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 잡음 없이 충분한 스케일과 완전한 개성의 바탕 위에 하나의 공동체를 구상할 수 있다. 즉, 일반 서민 계급의 수많은 선남선녀들 한 쌍이 천재성과 부의 여유도 없고 오직 덕망만 가지고 있고 정숙하고 부지런하고 상냥하고 단호하고 친절하고 독실함만으로 팽팽히 서로 끌어당기며 영겨 있는, 그런 운수소관의 어느 활발한 서부 이주민 또는 도시를 말한다. 나는 현행 법률과 현명하게 선출된 권력 속에서 조직된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농업과 건축과 무역과 법정, 우체국, 학교, 선거 등 모두가 참여하는 대표를 뜻한다. 그리고 나서 여생의 중요한 것은 각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가지를 뺏고 꽃을 피우고 황금 열매를 맺는 것이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그리고 그 후세의 모든 사람들을, 몸과 마음과 정신 속에 균형 있게 단련된 게다가 성숙된 그야말로 진실한 개성을 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이 필연적으로 희귀하거나 어렵지 않고 오직 우리 세대의 시민적 그리고 일반적 필요 속에 낙천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역사 또는 시처럼 아름다운 것들의 어느 상투적인 성공보다 더 훌륭한 성공의 절정을 실현시킬 수 있다. 어쩌면 노래 불러 지지 않고 극화되지 않고 평론이나 전기 속에도 들어있지 않은, 어쩌면 기존의 오하이오, 일리노이, 미조리, 또 어느 곳의 공동체보다도 실제로 실속이 있는, 이제까지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만 모습을 보여 왔던 가장 값싸고 상스러운 삶보다도 더 훌륭한 성공의 절정을...

여전히 수준 높은 문학 작품의 생산을 위하여 또 다른 기준과 암시가 존재한다.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세계를 실제로 균형 잡히게 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영속하고 있는 직관적 판단력과 인간성과 공정성과 용감성과 예의바름처럼 입법과 경찰력과 법규준수 의무와 형벌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많다고 해서 지나친 것은 아니다. 사실 이렇게 지속적인 조정과 통제와 스스로 부족 되는 것을 보충하는 단속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다. 그리고 가장 고결하고 폭넓은 민주주의의 목표는 그 필요조건의 싹을 잘 틔우고 길러 민주주의의 튼튼한 기둥이 되도록 만들 것이며 개인과 사회 속에서 이러한 판단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우수한 개체에 의해 지배되는 일반적인 하급 개체의 강력한 지위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며 튼튼해지고 그러나 개체 또는 집합 민주주의를 위하여 문학 작품의 형체 안에, 확실히 위대하고 열정적인 육체 안에 서로 어우러져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정신으로 조화된다.

여전히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면서, 나는 그러한 사실 다시 말해서 강력한 자연철학자와 웅변가와 시인과 이 연방이 요구하는 필요성에 어쩔 수 없이 직면한다. 위험한 그리고 폐허와 이반을 넘겨받은 이 시대에 다가올 재결속의 구심점으로서. 왜냐하면 역사는 영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러한 진술의 결합을 변통하고 되돌려 생각함으로써, 미국의 장래 문제는 어두운 만큼

믿을 수 있는 존경심 또한 거대하다는 것을 내포한다. 자존심, 경쟁, 분열, 부도덕한 고집, 전형에 위배되는 허가와 같은 것들이 한 배의 병아리들처럼 이미 우리에게 안겨져 있다. 이렇게 다루기 어렵고 광대한 것들을, 성서 욕기에 나오는 그 거수와 같이 강력한 힘을 누가 붙잡아 둘 수 있겠는가? 성서에 나오는 거대한 바다 동물 레비아단과 같이 거대한 힘을 누가 속박시킬 수 있겠는가? 거대하면서도 불안정한 직조기의 직조과정에서 실이 옆으로 벗어난 것과 같이 정도에 어긋난, 무섭고 위험스러운 것들을 골라내어 밖으로 드러내 보여야만 한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무익하다. 민주주의는 가장 두껍고 위험하고 가장 치명적인 식물과 설상가상으로 침입자들을 불러들이는, 좀 더 새롭고 크고 강하고 예리한 다시 말해서 어느 기관의 결함을 보충하는 또 다른 기관과 강제자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것들의 결실을 무성히 자라게 한다.

사실 전체를 포용하는, 거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그 많은 것을 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가 자체를 불사르는 그야말로 전체를 불사르는 열정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멸망과 타락이 밀려 닥쳤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것들을 피한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다시 밀려닥칠 것이다. 닥쳐올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최근 남북전쟁 동안에 무수히 많은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최선의 삶, 끝까지 버리지 않는 모든 희망과 가치에 의지하는, 폭풍 속의 배처럼 최선을 다하여 우리나라는 그 위기를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 의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었는지 나는 안다. 아 슬프다! 그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고통과 피와 피비린내를 생각하면. 그들의 비참하고 통렬하고 끝에 매달린 위기를 생각하면.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되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경박함과 정당들의 맹목적인 격분, 불신, 상층계급의 지도자들의 결점은 많은 열등심과 걸치레적인 민중의 천박함(그러한 노동의 문제는 매년 급속하게 마치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항만처럼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전망하겠는가? 우리는 격랑의 위험한 바다를 향해하고, 해류와 그 소용돌이(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련)를 헤치고 나와 어디로 갈 것인가? 고난을 극복한 이 절대적인 힘은 이 나라의 눈앞에 장엄한 마치 태양처럼 빛나는 운명의 모습을 펼쳐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 깊은 내적 고난과 부패한 결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무리가 있다. 말하라, 자, 앞날의 진로와 발전계획과 오래되고 다양한 그리고 고

통스런 실책과 분노의 북받침을.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 깊이 있는 말을 하고, 나는 과거와 현재 등 모든 어두운 그늘을 넘어, 구왕조 시대의 역사를 내려놓고, 나를 극복하고, 그러한 것들이 마치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고, 구시대의 역사는 난쟁이로 만들고) 절대권력의 절대 권력이 될 것이다. 나는 혼자서 웅대하면서 최고 절정인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다. 만약 이 나라, 오,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진실로 영광을 얻게 된다면, 당신의 영혼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희생이 있고, 이미 희생의 표본이 있다. 당신은 배처럼 무르익었으며 웅대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당신이 웅대하다고 믿는다면, 시대와 세기를 뛰어넘어 희생을 극복 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라. 희생에 비례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왜냐하면, 당신 역시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투쟁자, 배반자, 업무에 있어서 간교한 사람, 연주창처럼 썩어 고름이 나는 부, 포만한 성공, 악마적인 탐욕, 걱정의 지옥, 신뢰의 쇠퇴, 오래도록 뒤로 미루기, 화석과 같은 무기력, 끊임없는 혁명의 필요성, 예언, 폭풍우, 죽음, 탄생, 새로운 기획과 사람과 이념에 대한 격려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민주주의를 전망하기 위하여 최고의 정점에 도착하였다. 나는 대표로서의 한 계급의 설립 속에 공표된 확신이(새롭고 보다 위대한 문예작품, 그 가능성, 아니 확실성은 전적으로 이들의 심사숙고 하에 있다)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정당들, 상부구조와 같은 것들은 모두 그 속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나에게 실제로 국가의 현황과 장래와 민주주의의 발전뿐만 아니라 영속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대문명의 예술적 물질적 기반 속에 삶의 교감과 영위방식, 지식의 강력한 주입, 가난과 마찬가지로 부유가 만들어내는 부패의 영향력, 개성 속에 잠재한 최상 이념의 부재(시대의 경향과 현상의 오랜 연속, 충분한 저항력은 거의 없고, 이제 빠른 증기기관과 함께 어느 곳에서나 철 주물의 양식 같은 인간성의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봉건시대와 비교되는 모든 것들을, 아직 우리에게는 최고의 것으로 만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리고 대양처럼 실제적이고 장엄하며 끊임없고 수없이 많은 민중의 융합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나는 먼 미래 속에 도착하거나 축적된 선견지명으로서의 결과와 함께 미연방 속의 현재의 삶을 감내하는 단독의 물질적 모든 이 엄청나게 크고 유력한 역할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들은 적어도 정신적인 의의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목적을 위해, 깨끗한 양심을 위해,

순수한 탐미를 위해,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위해, 또는 공허 속에 움트고 있는 현대문명 즉 모든 진보를 위해, 희귀하고 엄청난 거 큰 역동성이 주입되고 있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성공의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그 속의 새로운 목록(사람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의 끊임없는 실천, 발전, 얽힌 일이 잘 풀려나감)으로서의 삶은, 우리가 목적하는 강력한 암시, 목표가 설정된 기대와 희망, 언급되거나 언어로 기록된 새롭고 강력한 법률을(단지 교육적 형식, 正丁, 균형, 전통의 교수, 비 예의적인 사건, 좋은 일, 명확히 언급된 사상뿐만 아니다)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나 언어는 자연의 숨결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언어는 사람을 비약시키고, 대부분 반동력의 효과를 위해 고무시켜 식물처럼 무성히 자라게 하는 무엇을(삶과 개성의 부신符循), 그리고 그것을 암시하고 필연적이게 하는 것보다 더 드물게 언급된다) 위해 유념한다. 사실, 최상층 계급의 상상력을 위해, 특히 최고 수준의 시를 위해 쓰여진 문학작품의 새로운 이론은 이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유일한 과정이다. 독서의 과정은 비몽사몽과 같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저서의 발간이 요청되고 보급된다. 그러나 독서는 고도의 정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실천이며 정신적 단련의 투쟁과정이다. 독자는 자신을 위하여 독서를 하는 것이며, 독서는 신중히 이루어져야만 하고, 사실 사람들 자신은 시와 논조와 역사와 형이상학적 비평 즉 텍스트가 암시와 그 실마리와 작품의 발단 또는 줄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직하여야만 한다. 저서는 완벽한 것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저서를 읽는 독자는 완벽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유연하고 강건한, 잘 단련된, 직관적인, 자기 자신에 의지하는 정신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며, 또 그러한 작가의 무리가 거의 없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조사해 보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도서관 안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책과 기록 등 가지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것에만 의존하면 직접 간접으로 피가 흐르지 않는 핏줄, 힘이 없는 팔, 좋지 않은 적응처럼 그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 국민의 관심은 신학, 역사, 시, 정치, 그리고 과거의 개인적 양식이(예를 들면, 영국의 깊고 오랜 과거) 우리 자신 또는 우리의 문학과 함께 어우러져 형성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데 있다. 그러나 보다 더 명확한 비교, 충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먼 미래의 웅대함, 차이, 미래의 역사, 종교, 사회적 관습 등 능숙하게 마무리하는 기능공이 되어

야 한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이 봉건적 동양적 제도, 종교 아래 인간성에 대한 언급과 함께 쓰이고 노래 불리고 진술되고 고착되었음을 본다. 다른 한편, 이 연방의 제도와 함께 양립하는 양식 속에서 다시 쓰이고 다시 노래 불리고 다시 진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한계가 다가오고 그들과 동질성에 순응한다.

물질적 코스모스의 세계에서처럼 우리는 기상학적 동식물적 자연의 교환 뒤에 인간이 탄생되고 흥기되고, 그 세계를 증명하고 집중시키고 그 세계를 경이와 사랑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세계를 관조하고 세계를 장식하고 보다 우수한 영역으로 운반하는) 본다. 그래서 옛날의 낡은 사회적 정치적 세계는 밖으로 끌어내고, 이제 이 연방을 일으켜 세운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확립되고 완성되는 것을 상상하는 동안, 실제적으로 가장 웅대한 것들이 항상 남아 있음을 바라본다. 그리고 신세계의 사업은 끝이 없고 오직 공정하게 시작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나라 아메리카의 문학과 탐미 등을 바라본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형식, 발산과 진술, 가장 깊고 기본적인 기초와 가장 고귀한 마지막 의미, 역사와 인간의 형식 속에서 얻게 되는 것, 묘사되는 것, 불변의 원칙과 미의 조건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의 외관, 주체적 결속과 대상의 표현, 우리 자신의 결합, 영속, 관점으로서, 그리고 가장 많이 축적되고 기록된 국가적 정신활동, 개성, 호소력, 용맹, 전쟁, 그리고 문학까지 바라본다. 이 모든 것은 국가적 문학과 예술적 명확한 진술 속에서 영속되고 질정에 이른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적으로 제1신분의 공식화가 아니고, 질정에 오른 위의 모든 것들은 몸부림치며 전진하고, 한편 강요하고, 고귀한 신분, 단지 희미한 불빛의 스킴을 증명할 뿐이다. 그러나 진실로 그것을 갖게 됨으로써, 질정에 이른 것들은 스스로 이해될 것이며, 고귀하게 공헌하며 살고, 퍼져나가고, 진행되며, 스스로 안전하게 균형을 유지하게 되고, 조명을 밝히고 밝혀지며, 형식적으로 완성된 세계, 물질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세계까지도 신성한 모국이 될 것이다. 모든 시대의 끊임없는 성공 속에서, 이 중요한 것들은 보편적으로, 피가 흐르는 육신과 구체성과 민주주의적이고 인기가 높은 것으로서, 이 미래의 모든 상부구조는 영원히 안주할 것이다.

휘트먼의 시집 「풀이」 서문 (1885 초판)



(시사문단 통권 72호 2009. 04. 01, 통권 73호 2009. 05. 01, 통권 74호 2009. 06. 01, 통권 75호 2009. 07. 01, 통권 76호 2009. 08. 01)

휘트먼(Walt Whitman) / 주근욱 역

미국은 과거 또는 형식과 정치의 중심·계급사상·구종교가(조용히 학습된) 참고 견딜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추정된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 편견은 판단과 방법과 문학을 아직 붙잡고 있다. 그러나 인생이 새로운 형식의 새로운 삶으로 그 요구조건이 관철되는 동안 그 편견의 시신(屍身)이 침실로부터 서서히 운반되고 있는 것을 인지한다. 그 시신이 문에서 잠시 기다리는 것을 인지한다. 그것은 그의 생애 동안 매우 긴장했었다. 그의 행동력은 가까이 있는 긴장하고 건강한 상속인에게 물려 내려간다. 그리고 그 상속인은 그의 일생동안 가장 건강할 것이다.

연방의 모든 미국인들은 언젠가 지구가 시적 자연으로 아마 가득 찰 것이라고 믿는다. 연방 스스로가 본질적으로 가장 위대한 시이다.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크고 가장 멋진 감동이 그들에게 보다 넉넉하고 큰 것과 자극으로 길들여져 정연하게 나타난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주야로 퍼뜨린 행동과 일치하는 인간의 행위 속에 무엇인가가 있다. 여기에 단지 일개 연방 뿐만 아니라 연방 중의 풍요한 연방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거대한 민중 속에서 웅장하게 움직이는 특별하고 섬세함에 부득이 눈먼 끈으로 엮매이지 않는 행동이 있다. 여기에 영웅들을 영원히 알리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 여기에 영혼이 사랑하는 거친 턱수염과 허공과 울통불통함과 무뚝뚝함이 있다.

여기에 풍요롭고 화려한 호사의 너그럽고 소나기로 흐르고 속박 없이 펼쳐지는 투시도(透視圖)의 늠름한 기상과 민중의 무서운 용맹과 몽치고자 하는 행동을 떨리하는 말하자면 소인배들이나 하는 것과 같은 자질구레함을 경멸하는 행동이 있다. 인간은 여름과 겨울의 풍요로움, 그리고 옥수수가 흙속에서 자라고 파수원에서는 사과가 떨어지고 꿀짜기에서는 사내가 계집과 더불어 아기를 낳는 동안 결코 파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함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다른 나라들은 그들의 대표자들이 대표한다. 그러나 미연방의 천재성은 그들의 행정부나 입법부나 대사, 작가, 대학, 응접실, 또는 신문이나 발명가에게 많이 있지 않고, 가장 우세하지도 않다. 항상 가장 평범한 민중에게 있다. 그들의 태도 말씨 옷 친구들과의 관계, 그들에게서 풍기는 신선함과 이상의 솔직함, 멋대로 풀린 듯 생생한 몸가짐, 자유에 대한 불멸의 애착, 예의 없거나 우유부단하거나 비열한 것은 어느 것이건 혐오한다는 점, 다른 모든 나라들의 시민에 의해 한 나라의 시민이 실제적으로 인정되는 것, 그들이 분개하는 걱정, 그들의 호기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환영, 그들의 자부심과 놀랄 만한 연민, 알몸에 대한 민감성, 뒷사람 앞에 서있는 것이 어떤 느낌인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갖는 태도, 말의 유창함, 그들의 음악취미, 사내다운 자비심과 타고난 영혼의 우아함을 지니고 있는 확실한 징후, 그들의 선한 기질과 넓은 도량, 그들이 참여한 선거에 대한 대단한 의미부여,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그들은 대통령에게 모자를 벗지 않고 대통령이 그들에게 모자를 벗는다. 이것은 역시 연체시(連體詩, blank verse)이다.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대하고 관대한 대우를 기다린다.

자연이나 국가의 크기는 시민들의 마음에 상응하는 크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 자연이나 무리지어 움직이는 국가 도로 기선, 변형하는 직업, 농장 자본 또는 배움이 사람의 이상을 위하여 충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시인 또한 충분하게 기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회상 또한 충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살아 있는 국가는 속 깊은 특성을 항상 도려낼 수 있고 가장 값싼 것에 대해 최상의 권위를 소유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자신만의 영혼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 현재의 행위, 위엄과 시인들의 주제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유익한 결실이다. 마치 미국의 동부 역사에 있어서 현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속보를 걷는 것이 필요했던 것처럼

럼. 마치 아름답고 신성한 명증이 신화적인 것의 뒤로 실각했던 것처럼. 마치 사람들이 어느 시대의 밖에서 그들의 특징을 만들지 않는 것처럼. 마치 미국의 서부 대륙이 발견에 의해 개방되고 남과 북의 미국이 구식의 소극장이나 중세의 작은 극장이나 중세의 몽유병자처럼 방향이 없었던 것보다 더 왜소한 것으로 생겨난 것처럼. 미연방의 자부심은 부와 도시들의 야심에 찬 책략과 상업과 농업으로 되돌아옴과 모든 지형의 크기를 허락한다. 성숙한 사내들과 한 사람의 굴복시킬 수 없고 순박한 성인 사내가 번식을 즐기는 외면적 승리의 과시를 허락한다.

미국을 위하여 낡은 것과 새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미국의 시인들은 독특한 몇 중의 멋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음유시인은 민중과 함께 어울린다. 음유시인에게 다른 대륙은 헌배하며 다가온다. 음유시인들은 그들의 목적과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받아들인다. 음유시인 정신은 그의 나라의 정신에 부합된다. 음유시인은 지형과 자연적 삶과 강물과 호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구체화한다. 해마다 미시시피는 홍수와 급류의 줄기를 바꾸고, 미시시피와 콜롬비아와 오하이오와 세인트 로렌스의 폭포들과 아름답고 거친 허드슨은 스스로 강어귀를 만드는 것보다 더 깊이 바닥난 곳에 강어귀를 만들지 않는다. 그 푸른 폭은 버지니아의 내륙과 매릴랜드와 매사추세츠의 외해(外海)와 메인 너머와 맨해튼 골짜기와 챔플레인과 에리에 너머와 오타리오와 허드슨과 미시간과 슈퍼리어 너머와, 그리고 텍사스 사람과 멕시코 사람과 플로리다 사람과 큐바해와 캘리포니아 외해 너머와 오레곤은 그 푸른 폭의 물이 그 위쪽의 물보다 더 아래쪽에 있고, 그 아래쪽은 그에 의해 일치된다. 긴 대서양 연안은 더 길게 뻗고 태평양 연안은 그들과 함께 북부 또는 남부로 쉽게 뻗는 것보다 더 길게 뻗어나간다. 그 연안은 또한 동부와 서부 사이에 걸쳐 있고 그들 사이에 있는 것들을 반영한다. 그 터전 위에서 소나무와 히말라야시다와 솔송나무와 떡갈나무와 메뚜기와 밤나무와 시프레스나무와 호두나무와 보리수나무와 미루나무와 감나무와 목백합과 선인장과 덩굴과 타마린드나무와 감나무는 자라고 숙성해져서 그들의 종을 파생시킨다. 대나무와 늪으로 뒤엉킨, 그리고 숲은 투명한 얼음으로 입혀졌고 바람 속에서 큰 가지는 매달려 열지 않고 툭툭 소리를 낸다. 그 주변과 산정, 그리고 목초는 부드럽고 서배너강처럼 고원지대처럼 대평원처럼 자유롭다. 야생 비둘기와 딱따구리와 과수원의 꾀꼬리와 물닭과 검둥오리와 말뚝가리와 물수리와 대머리수리와

푸른 백로와 독수리가 서로 화답하며 날고 노래하고 깔깔거린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유전적 용모는 양친으로부터 물려받는다. 실제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의 본질, 즉 기운의 엄청난 차이와 농업과 그 축척으로 이루어진 본질이 그에게 감지된다. 비바람에 시달린 배들이 새로운 항구에 들어가거나 바위로 뒤덮인 해안에 착륙하거나 하여 북부와 남부에 자리 잡은 원주민(숙성한 키와 근육), 1776년의 불손한 정의와 전쟁과 평화와 체격의 형성... 연방은 항상 실없는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항상 고요하며 확고함, 이민들의 영구한 입주, 시민들과 우수한 해군들에 의해 둘러싸인 부두(답사되지 않은 내륙) 통나무집과 간척지와 야생동물과 사냥꾼과 텃밭을 놓는 사람들... 자유로운 상업, 어부들과 포경업과 금광 찾기, 새로운 신분의 끝없는 잉태, 매년 12월의 의회 소집, 의원들은 모든 지방과 모든 분야로부터 서서히 모여든다. 뛰어난 성격을 갖고 젊은 숙련공과 자유로운 미국의 근로 남성들과 근로여성, 일반적인 열정과 우정과 기획, 남성과 더불어 여성의 완전한 평등, 커다란 열정을 갖고 성장하는 공장들과 상업 활동과 노동 축척의 기계, 그로 인하여 인구의 유동적 변동이 있고, 양키들은 서로 교역한다. 뉴욕의 소방관과 짧은 유람여행, 남부의 농장 생활, 북동부의 특성과 북서부와 남서부의 특성과 노예제도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펼치는 손들의 떨림, 그리고 중지하거나 결코 말하는 것과 입술을 움직이는 것이 중지될 때까지 결코 중지하지 않겠다는 완고한 저항, 왜냐하면 그러한 미국 시인의 표현은 훌륭하고 새롭기 때문이다. 그것은 간접적이며 서술적이거나 서사적인 직접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 특성은 이것들을 더 많이 경험한다. 그 연대와 다른 나라들의 전쟁은 구가되고 그들의 연대와 특성은 설명하고 그 운문은 끝나치자. 공화국은 그렇게 위대하게 찬송하지 말자. 여기 그 주제는 창조되었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여기 가장 존경받는 석수(石手)와 결심과 과학으로 이루어진 계획 사이에 한 사람이 다가온다. 그리고 비만하여 굳어버린 형식이 아니고 새로운 미래의 아름다운 형식과 충만함을 보라.

모든 국가들 가운데 시적 성분으로 가득 찬 혈관을 갖고 있는 미연방은 가장 시인들을 필요로 하고 가장 위대한 시인을 갖게 될 것임이 틀림없고 그들을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대접할 것이다. 그들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시인들이 행하는 만큼의 일상적인 조정을 하지 못할 것이다. 형형색색의 위대한 시인들은 평등한 인간이다. 그의 내부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떨어져나간

사물들은 그로테스크하거나 괴팍하거나 제 정신이 아니다. 적재적소를 벗어난 사물은 좋은 것이 없고 적재적소에 있는 것치고 나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시인은 모든 대상체와 그 성질에 더도 덜도 아니고 적당한 균형을 부여한다. 그는 다양성의 중재자요 열쇠이다. 그는 시대와 영토의 평형장치이다. 그는 보완을 원하는 것은 보완하고 견제를 원하는 것은 견제한다. 만일 평화가 그 평화의 정신과 크고 부유하고 검소하고 광활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말하는 정상적인 루트를 벗어난다면, 농업과 예술과 상업에(인간의 연구, 영혼, 영생불멸) 용기를 북돋는다. 동맹국가나 시정부, 결혼, 건강, 자유무역, 육지나 바다의 짧은 유람 여행, 너무 가까운 것도 없고, 너무 벗어난 것도 없고, 시인들 또한 너무 벗어나지 않는다. 전쟁에서는 시인이 가장 위력적인 힘이다. 시인을 신병으로 뽑는 것은 기병과 보병으로 뽑는 것과 다름없고, 시인은 엔지니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중 가장 우수한 대포를 가져온다. 사람이 나태해지고 몸이 무거워질 때 일깨우는 방법을 그는 알고 있다. 시인은 그가 말하는 낱말 하나하나가 선혈을 뿜어내도록 할 수 있다. 관습이나 복종이나 입법의 평면 속에 고인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고이지 않도록 한다. 복종은 그에게 주인이 아니고 그가 복종을 지배한다. 그는 그의 손끝에서 벗어나 높이 있는 빛을 되돌려 응축시킨다. 그는 그의 손으로 회전축을 돌린다. 그는 서서 가장 빠른 주자를 발버둥치게 하고 쉽게 따라잡아 그들 에워싼다. 시간이 불신과 사탕발림과 희롱 쪽으로 벗어나는 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억누르고, 접시들을 펼쳐 사내와 계집들을 자라게 하는 질기고 맛있는 고기를 제공한다. 그의 두뇌는 최고의 두뇌이다. 그는 논쟁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재판관이다. 그는 판사가 판결하는 것처럼 판결하지 않고 다만 무기력한 것의 주위에 햇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심판한다. 그는 가장 먼 것을 보는 것과 같이 가장 큰 신념을 갖고 있다. 그의 사상은 사물을 칭찬하는 찬송가이다. 그 영혼과 영겁과 그의 수준을 벗어난 신의 말속에서 그는 서막과 대단원이 있는 연극처럼 영겁을 보지 않는다. 그는 인간의 군상 속에서 영겁을 본다. 그는 꿈이나 오점처럼 사내와 계집을 보지 않는다. 신념은 아주 청결한 영혼이다. 신념은 민중 속에 충만하고 그들을 보호한다. 그들은 믿음과 소망과 진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거기에 가장 고상하게 표현되는 천재성의 위력을 낮추고 업신여기는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신선함과 무의식이 있다. 시인은 예술가가

아닌 사람이 가장 위대한 예술가만큼 어떻게 신성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지는가를 확실하게 관조한다. 파괴하거나 다시 개조하는 그 위력은 그에 의해서 자유로이 구사되지만 결코 무력으로 침략하지는 않는다. 만일 그가 보다 높은 수준의 모형을 드러내지 않고 그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모든 단계에 의해 그 스스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시간에 과거는 과거, 그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가장 위대한 시인이 정복한 존재, 협상하거나 싸우거나 미리 준비된 공격이 아닌. 이제 그는 그 뒤에 보이는 길을 통과했다. 거기에 어느 절망의 흔적이나 염세나 간사함이나 배타성이나 출신이나 피부색이나 지옥의 망상이나 지옥의 필수품, 그리고 그 때부터 무지나 약점이나 죄악으로 아로새겨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장 위대한 시인은 시시하거나 평범한 것은 거의 모른다. 만일 그가 전에 작다고 생각되었던 사물 속으로 입김을 불어넣는다면 그것은 우주의 웅장함과 생동감으로 팽창할 것이다. 그는 예언자요 그는 개인적이에요 그는 스스로 완전하다. 다른 사람들도 그 만큼 훌륭하지만 오직 그만 관조할 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그는 코러스의 단원이 아니다. 그는 규정 때문에 중단하지 않는다. 그는 규정을 관장하는 사람이다. 견자(見者)가 사물에게 보내는 시선을 그도 사물에게 보낸다. 호기심 많은 견자의 비밀을 누가 아는가? 다른 사람들의 직관은 그들 스스로를 확증하지만 이것은 어느 증명이라도 제거하지만 그는 그 자신과 정신세계의 정체(正體)를 알지른다. 무엇이 놀라운가? 무엇이 믿어지지 않는가? 무엇이 불가능하고 근본 없고 애매한가? 일단 예쁜 소녀의 복숭아빛 음문(陰門)을 열어 주었고, 멀리 가까이에 있는 청중에게 황혼에게 부드럽이 빠른 속도로 모든 사물을 혼란이나 난폭하거나 곤란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인데.

육지와 바다, 동물들과 물고기와 새들, 하늘과 천체, 숲으로 우거진 산과 가을은 하찮은 주제가 아니지만 보통사람들은 시인들이 무언의 실제적 목표를 공격하는 아름다움과 위엄보다 더 높이 가리키기를 기대한다. 사내와 계집들은 아마 시인만큼 충분히 아름다움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사냥꾼, 나무꾼,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정원과 과수원과 밭을 경작하는 사람들의 열렬한 집착력, 남성같이 건강한 계집들, 선원, 말뚝이꾼의 사랑, 햇빛과 확 트인 야외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을 틀림없이 인지하고 있으며 교외에 사는 사람들 속에 시적인 면이 있음을 표시하는 여러 가지 표적이 있

다.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시인들의 도움을 결코 받을 수 없다. 어떤 이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받을 수 없다. 그 시적 특성은 리듬이나 통일성이나 사물을 설명하는 관념이나 불평이나 훌륭한 교훈 속의 애수로 배열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삶과 그밖에 많은 것들이 영혼 속에 존재한다. 리듬의 이로운 점 즉 그것은 달콤하고 무성한 리듬의 열매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통일성의 이점은 눈에 띄지 않게 흡속으로 뺏은 스스로의 뿌리로 자신을 나른다는 것이다. 완벽한 시의 리듬과 통일성은 운율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보여주고 숲속의 라일락과 장미처럼 정확하고 느슨하게 그들로부터 꽃봉오리를 맺고 알밤과 오렌지와 멜론과 배처럼 알찬 모습을 보여주고 형식으로 하여금 영묘한 향기를 발산케 한다. 아름다운 시나 음악이나 연설이나 시낭송의 유창함과 수식은 자유롭지 않고 예측적이다. 모든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피와 아름다운 두뇌로부터 온다. 그 위대함이 사내와 계집 속에서 결합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사실은 우주를 통해서 설득될 것이다. 그러나 기만과 허식은 수백 만년 동안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수식과 유창함에 대하여 스스로 고민하는 자는 멸망한다. 이것은 당신이 해야 할 것이다. 지구와 해와 동물들을 사랑하라. 부를 쫓아내라.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라. 어리석고 실성한 사람들의 편에 서라. 다른 사람들에게 수입과 노동력을 바쳐라. 압제자를 미워하라. 신에 대하여 논쟁하지 말라. 민중을 향하여 인내와 관대함을 가져라. 알려져 있던 알려져 있지 않든 무가치한 것에 모자를 벗지 말고 어느 사람에게든지 모자를 벗어라. 무지한 사람들과 젊은이와 집안의 어머니들과 자유롭고 활기차게 어울려라. 당신이 살아가는 매년 매 계절마다 활짝 트인 교외에 나가 이 시집을 읽어라. 학교에서 교외에서 어느 책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재음미하라. 당신의 영혼에 무례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쫓아버려라. 조용하고 위대한 시는 한없이 신선하며 가장 부유함은 낱말 하나하나 뿐만 아니라 그 입술과 얼굴과 눈빛의 채찍과 모든 몸짓 속에서 몸을 묶는 그 조용한 시구들도 유창함을 갖게 될 것이다. 시인은 무료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시인은 흡이 항상 경작되고 거름이 주어질 준비가 되어있음을 알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시인은 경작하고 거름을 줄 것이다. 시인은 피조물에게 직접 다가 갈 것이다. 그의 진실은 그의 손이 닿는 모든 진실을 포용할 것이며 모든 애착을 포용할 것이다.

기지의 우주에는 한 사람의 완숙한 연인이 있으니 그가 곧 시인이다. 그

는 영원한 열정을 불태우고 어떤 기회가 오건 말건 무관심하고 행운이나 불운의 우연한 가능성이 있건 없건 매일 매 시간마다 기꺼이 줄 것이라는 것을 설득시킨다.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것은 접촉과 사랑스러운 기쁨으로 발전시켜 불태우려는 연료이다. 다른 사람들이 즐거움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점점 줄어들어 없어진다. 하늘로부터 또는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기대된 모든 것들은 새벽의 광경 속에서 함께 일치되고 겨울 숲의 광경이나 뛰노는 아이들의 존재나 사내와 계집의 목을 감은 팔과 함께 그는 일치된다. 모든 사랑의 정상에 있는 그의 사랑은 여가와 넓은 공간이 있다. 그는 스스로 여지를 남긴다. 그는 우유부단하거나 의심 많은 연인이 아니다. 그는 믿는다. 그는 간극(間隙)을 경멸한다. 그의 경험과 빗발침과 스틸은 무용지물이다. 아무도 그에게 충격을 줄 수 없다. 고통과 어두움, 죽음과 공포도 그에게 불평하고 질투하는 것과 선망은 흙속에 묻혀 썩은 시체들. 그는 문헌 그들을 보았다. 그가 모두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의 사랑의 열매가 있음을 믿는 것만큼 바닷가 해안에 대하여 해안이 바다에 대하여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아름다움의 결실은 요행이 아니다. 인생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중력처럼 정확하다. 전경(前景)은 또 다른 전경으로부터 생기고 들림은 또 다른 들림으로부터 생기며 목소리는 인간과 더불어 조화를 사물의 끝없이 호기심을 갖는 또 다른 목소리로부터 생긴다. 이들과 서로 상응하는 완전성은 나머지 사람들의 편이라고 생각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을 대표하는 스스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민중의 홍수 속에서 완전성의 법칙을 이해한다. 그 완전성은 그 스스로를 위한 것이고 그 스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풍부하고 공평하며 그것이 없으면 밝음과 어둠의 순간뿐만 아니라 한 뺨의 물과 바다도 없고 하늘의 명령도 생업도 사건의 전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아름다움의 독특한 표현이 정밀하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 부분을 다른 부분위로 억지로 밀어 올릴 필요가 없다. 가장 훌륭한 가수는 가장 우렁찬 오르간과 같은 음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의 즐거움이 가장 멋진 운율과 직유와 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력 없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조금도 들춰내지 않고도 위대한 시인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모든 사건과 열정과 장면과 사람들의 정신을 제시한다. 이런 일을 잘 하는 것은 시간을 쫓고 따르는 법률에 비견할 만하다.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해야 하고 실마리가 있어야만 한다. 가장

희미한 암시는 최상의 암시이며 가장 명확한 암시가 된다. 과거 현재 미래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묶여 있다. 가장 위대한 시인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괄성을 과거와 현재로부터 형성시킨다. 그는 사자(死者)를 관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발 앞에 세워 놓는다. 그는 과거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내 앞에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교훈을 배운다. 미래가 현재가 되는 곳에 자리 잡는다. 가장 위대한 시인은 성격과 장면과 열정에 눈부시게 빛을 발할 뿐 아니라 마침내 올라가 모든 것을 끝맺는다. 그는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정상을 보여준다. 그는 가장자리에서 잠시 불타오른다. 그는 후에 여러 해 동안 고무되거나 두려워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순간의 섬광에 의해 반쯤 숨겨진 미소와 찡그린 얼굴이 될 때 가장 경탄할 만하다. 가장 위대한 시인은 설교하거나 윤리 도덕에 몰두하지 않는다. 그는 영혼을 안다. 그 영혼은 어느 교훈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이 간직하고 있는 무궁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부심만큼 무한한 연민을 갖고 있고, 자부심은 연민과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어느 한 편이 다른 한 편과 함께 뻗어나갈 동안 너무 지나치게 뻗어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예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은 이 두 가지와 함께 잠자고 있다. 가장 위대한 시인은 이 두 가지로 만들어진 안식의 땅에 존재해 있으며 그들은 그 형식과 내용 속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기교 중의 기교, 표현의 화려함과 문자의 빛으로 짜인 햇살은 천진난만하다. 천진난만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과잉이나 명확성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충동이 일어나고 지적인 깊이를 간파하고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주제들은 혼하거나 회귀하지도 않은 힘이다. 그러나 더 나무랄 데 없는 청렴과 동물들의 태평스러운 움직임과 숲속에 있는 나무들의 나무랄 데 없는 정서와 길쭉의 풀들은 예술에 있어서 무결점의 승리와 함께 문학에 대하여도 언급한다. 만일 그것을 성취한 사람을 보았다면 우리는 모든 국가와 시대의 예술가들 중에서도 대가의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이다. 우리는 항만을 비행하는 갈매기나 순종 말의 기운 찬 행동이나 키 큰 줄기에 매달린 해바라기의 기울음이나 하늘을 여행하는 태양의 자태나 달의 모습을 만족하면서 응시하지 말아야 하듯 그를 응시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위대한 시인은 두드러진 스타일이 없고 보다 더 많은 사상의 방향도 없고 증감도 없으며 그 스스로 자유로운 해협이다. 그는 그의 예술에게 맹세

한다. 나는 성깔을 부리지 않겠노라고, 나는 나와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커튼처럼 가려져 있는 그 방법에 매달려 우아하거나 효과적이거나 기발한 시를 쓰지 않겠노라고, 나는 그 방법 속에 아무 것도 매달리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값진 커튼이라도 매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간에 정밀하게 말할 것이다. 신분을 올리거나 깜짝 놀라게 하거나 때로 당하게 하거나 진실하도록 하자. 나는 건강과 뜨거운 감정과 차가운 지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목표를 설정하겠으며 단순히 관조하는 것만으로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경험하거나 묘사하는 것은 조각조각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구성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성될 것이다. 당신은 내 옆에 서서 나와 함께 거울 속을 들여다보시라.

위대한 시인들의 뜨거운 열기와 무결점의 온화함은 그들의 자유에 의해 증명될 것이다. 영웅적인 사람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관습과 전례와 권위를 벗어나 편안하게 걷는다. 작가 대학자 음악가 발명가 그리고 예술가 무리의 특성 중에서 새롭고 자유로운 형식으로부터 발전해 나오는 조용한 도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시와 철학 정치학 기계 과학 행동, 예술의 기교, 적절한 국립 오페라, 조선소, 그밖에 기술이 필요할 때 가장 근본적이고 실용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자가 영원히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가장 청결한 표현이란 그 스스로의 가치 있는 영역을 찾지 못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위대한 시인들이 모든 선남선녀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동등한 조건으로 오라, 오직 그 때에만 우리를 이해한다, 우리는 당신보다 더 나을 게 없다. 우리가 예워싸고 있는 것은 당신도 예워싼다, 우리가 즐기는 것은 당신도 즐겨워할는지 모른다. 당신은 절대자가 오직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무수히 많은 절대자가 있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경이 또 다른 전경을 보다 더 상쇄할 수 없고 사람들은 오직 그 자신 안에서 훌륭하고 위대한 절대자를 지각할 수 있을 뿐이다. 폭풍우의 웅대함과 국토 분할과 치명적인 전투와 파멸과 자연의 야생적 격노와 바다의 힘과 자연의 몸짓과 인간 욕망의 아픔과 위엄과 증오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여기저기서 경련 하는 하늘과 바다를 산산조각 부수고 자연과 걱정과 죽음을 지배하며 분노하고 소용돌이치는 영혼 속의 그 무엇이다.

미국의 시인들은 관대하고 호의적이며 경쟁자를 격려해주는 아량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독점과 비밀이 없고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나 주고 나서 즐겨워하는, 주야로 평등에 굶주린 우주가 될 것이다. 그들은 부와 특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부모보다 더 강력한 부와 동등한 부로써 보이는 모든 과시와 직면하는 사람이다. 미국의 시인은 사람의 계층이나 한 두 사람의 흥미의 층이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나 진실 가장 아름다운 영혼이나 육체를 묘사하지 않고, 서부보다 동부의 주들을, 남부보다 북부의 주들을 위하여 묘사하지도 않을 것이다.

정밀과학과 그 실천은 가장 위대한 시인에 의해 규제되지 않지만 항상 지원과 용기를 북돋아 준다. 거기에 최초의 발단과 추억이 있다. 거기에 맨 먼저 그를 올려주고 떠받쳐 준 팔들이 있고, 거기에 사라져 간 것들과 새로이 나타나는 것들 뒤로 그는 되돌아온다. 해부학자 화학자 천문학자 지질학자 무당 수학자 역사학자 그리고 사전 편찬자는 시인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인들에게 있어서는 입법자요 그들의 조직은 모든 완벽하게 창작된 시의 구조 속에서 초석이 된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무엇이 표명되든지 그들은 시라고 일컫는 개념의 씨앗을 보냈다. 그들은 그들에 의해 영혼의 명백한 증거를 내세웠다. 항상 그들의 부정적(父性的) 요소는 시인들의 야무진 경쟁의식을 낳았음이 틀림없다. 만약 거기에 그 부자간의 사랑과 만족이 있고 만약 아들의 위대함이 아버지의 위대함으로부터 스미어 나온다면 시인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 사이에도 사랑이 스미어 나올 것이다. 아름다운 시속에는 자연과 과학의 마지막 박수갈채가 있다.

지식의 용솨음에 대한 신뢰와 사물의 질과 표면의 깊이를 탐구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시인의 영혼은 의기양양하게 원을 이루며 부풀어 오르지만 항상 그 자신을 통제한다. 그 깊이는 잴 수 없고 그러므로 고요하다. 그 순결과 적나라함은 되찾아지고 그들은 겸손하거나 불손하지도 않다. 특별하고 초자연적이고 그것과 쌍을 이루거나 그것으로부터 끌어내어지는 이론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꿈으로서 출발한다. 과거에 일어났던 것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과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과 앞으로 일어날 것과 생명의 법칙들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 그들은 어느 경우이거나 모든 경우를 물론하고 만족한다. 서두르거나 늦추는 일도 없다. 어느 사건의 기적이나 웅대하고 청결한 조직 속에서 모든 움직임과 새싹과 남녀의 육신과 정신 그리고 그들에게 관

런된 모든 것들이 말할 수 없이 완벽한 기적들로 귀착되고 각각 적재적소에 있다. 그것은 또한 이미 알려진 우주 속에서 선남선녀보다 더 성스러운 그 무엇이 수용되는 영혼의 실재와 함께 일관되는 것은 아니다.

선남 선녀와 지구와 그 위의 모든 것들은 단순히 그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탐구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완벽하게 공평해질 것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 철학적 사색은 시인을 향하여 있고, 모든 행복을 향하여 영원히 옹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눈여겨볼 때마다 느끼는 감각과 영혼이 해맑음과 조화를 이룬다. 왜냐하면 행복을 향하여 영원히 옹호하는 경향이 있음은 오직 온전한 철학의 특징을 만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보다 더 함축된 의미는 없다. 빛과 천체 운동의 법칙보다 작은, 도둑 거짓말쟁이 대식가와 술고래가 이승에서 그리고 분명 저승에까지 따라 다니는, 시간의 광대한 신축성과 인구밀도의 느린 형성과 신분 계층을 끌어올리는 인내심보다 작은 것들은 눈여겨보지 않는다. 완전한 형상은 평범함 속에서 나온다. 일반 법칙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평범함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 대가는 말할 수 없이 위대하고 모든 것이 말할 수 없이 위대함을 또한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이를 잉태하고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으며, 존재는 인식하거나 이야기하는 것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대가가 됨에 있어서 정치적 자유의 사상은 절대 필요한 것이다. 자유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영웅들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잔여의 사람으로부터는 시인들보다 더 많은 지지와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유의 목소리이며 해설자이다. 그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웅대한 사상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들은 믿음직스럽고 그들은 그 믿을 만한 사상을 지탱할 수 있음이 틀림없다. 그것을 앞질러 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왜곡시키거나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위대한 시인의 태도는 노예를 격려해 주고 독재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다. 시인들의 고갯길 밭길 손짓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으로 받아들여진다. 잠시 시인들에게 다가가라. 시인들은 당신에게 말을 하거나 충고하지는 않지만 신뢰할 만한 미국의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다. 자유는 한 두 번 혹은 여러 번의 실패로부터 훌륭한 의도가 목살 당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제대로 섬겨지지 않고, 우연한 무관심과 사람들의 배은망덕이나 불끈 치솟는 힘

의 날카로움이나 병사와 대포와 어느 가혹한 형법을 낳은 소송의 초래로부터도 제대로 섬겨지지 않는다. 자유는 스스로를 신뢰하고 아무에게도 권하지 않으며 아무 것도 약속하지 않으며 벗은 가운데 조용하게 앉아서 빛을 받으며 명확하게 구성된다. 그리고 낭패라는 것을 모른다. 전쟁이 일어나면 큰 소리로 경보가 울리고 전진과 후퇴가 찾아진다. 적군이 승리하여 감옥, 수감, 쇠목걸이와 차꼬, 단두대, 교수형구와 납덩어리가 제구실을 한다. 역센 목구멍들은 피로 막혀있고 청년들은 서로 지나칠 때 눈썹을 땅으로 내려 깔고, 그리고 자유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자유는 결코 사라지 않았다. 자유가 사라질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지 않았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최후까지 기다린다. 늙은 순교자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질 때, 애국자의 위대한 이름들이 공회당에서 연사들의 입으로 조롱당할 때, 사내아이들은 더 이상 똑같은 세례명으로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때, 그러나 압제자의 세례명으로 지어져 대신으로 특징 되어질 때 자유인의 법은 인색하게 허락되고 밀정과 범죄신고 사례금이 사람들의 취향에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지구 위를 활보하다가 우리와 동등한 우애로 교감하는 수없이 많은 형제들의 입장을 연민의 정으로 아파하며 아무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 우리가 노예의 입장에서 송고한 기쁨과 함께 고무될 때, 영혼이 어둠의 냉랭한 교감 속에서 물러나고 그 경험을 되살펴 보며 말의 무아경에 빠지고 압제자의 손아귀 속으로 어쩔 수 없이 순결한 사람들을 처넣거나 잔인한 열등의식 속으로 집어넣을 때,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에는 미국의 진정한 성격을 깨달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할 때, 비겁한 사람들의 무리 바보 짓대 없는 사람들 정치적 기생충 시의회 혹은 주의회 사법부 국회 혹은 관직에 진출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나, 민중으로부터 사랑이나 자연스런 존경의 감응을 얻을 때 그들이 직책을 얻든지 말든지 안정된 눈과 솔직하고 관대한 마음을 갖고 항상 모자를 벗지 않고 있는 가장 가난하고 자유로운 수리공이나 농부보다 직책 속에서 높은 봉급에 묶여 있는 일간이나 건달이 되는 것이 더 나을 때, 그리고 시나 주나 연방정부나 크거나 작거나 어느 압제에 의해 노예상태가 가장 적은 도피의 기회에 역비례하여 이루어지는 비율로 당연히 뒤따르는 형벌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혹은 모든 생명과 사람의 영혼이 지구의 어느 부분으로부터 쫓겨날 때, 그 때만이 오직 자유의 본능이 지구의 그 부분으로부터 쫓겨나게 될 것이다.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시인들의 속성은 진정한 육체와 영혼과 사물들의 즐거움 속에서 모든 소설과 이야기보다 월등히 순수함을 소유하고 있다. 시인들이 스스로 사실들을 토로하면 그것들은 빛처럼 쏟아진다. 그 빛은 더욱 폭발적으로 쏟아진다. 또한 일몰과 일출 사이의 심연은 더욱 더 깊어진다. 정확한 목표와 상황과 결합과 과정은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구구법(九九法)도 노년도 목수의 생업도 그랜드 오페라도 증기로 운항하거나 돛을 달고 바다에 떠있는 거대하고 말쑥한 뉴욕 쾌속정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집단들과 행정부와의 커다란 조화는 그러한 것들과 함께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한정된 목적과 행위들과 함께,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시인들은 조정과 암호와 분투와 전략을 첫 번째 원리로 발전시킨다. 시인들은 그 필요성으로부터 가난을 해결하고 그 자부심으로부터 부유함을 만들어낸다. 그들이 언급하는 커다란 타당성은 무엇보다도 더 깨닫거나 지각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을는지 모른다. 자유의 소유자는 돈을 지불하고 산 관료적 형식주의의 권리를 움켜쥐고 있는 자가 아니다. 각종의 발언과 주제와 형식과 평등함을 알아차려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의 소유자이며, 그들은 그 사람들 속에 쉽게 편입된다. 그리고 배풀거나 부성과 모성을 지향하는 의지력과 유연성과 부와 거대함을 획득한다. 강하고 건강하고 성취된 미국의 주들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형태의 침식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 틀림없다. 광물과 목재로 만들어지는 회화와 조소와 도서와 신문의 삽화, 희극과 비극,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지는 패턴, 아름다운 침실이나 가구나 복장이나 처마장식과 기념물, 뱃머리와 고물,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출입문 안팎의 어디에나 놓여있는 것, 그 영리하게 생긴 모습을 찌푸리게 하거나 비현실적인 존재와 장소와 유연성은 불쾌한 것이며 저항감을 일으키는 것이다. 특별히 인류의 모습은 결코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았음이 틀림없으며 더없이 위대한 것이다. 겉으로 꾸민 장식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식들은 열린 대기(大氣)의 완벽한 실재를 따른다는 것이 허용되며 자연의 창조 작업을 따르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억압할 수 없는 것이며 창조작업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그 창조 작업은 꾸밈없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 창조작업중에 더러 보이는 과장은 인간의 생리적인 한 풀이가 될 것이다. 순결하고 활발한 아이들은 매일매일 자연의 형식이 만들

어내는 모델이 공개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오직 분출되고 이해될 뿐이다. 위대한 천재와 각주의 민중은 결코 헛된 꿈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이 틀림없다. 역사는 언급되자마자 마땅히 더 헛된 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시인들은 또한 계략이 없이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허심탄회하게 정당화되는 사람으로 알려진다. 그러면 민중은 새롭고 손쉽게 얻는 즐거움과 그들의 두뇌로부터 도약하는 신성한 목소리로 반항 한다. 그 솔직성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모든 결점은 완벽하게 솔직한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탕감될지도 모른다. 이제부터는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자. 그 솔직성은 안팎의 세계로부터 신망을 얻고 단 하나의 예외도 없었기 때문이며, 우리의 지구가 한 무리가 된 이래로 사기와 협잡과 변명이 가장 작은 티끌과 가장 희미한 그들의 기미가 되었기 때문이며, 부와 계층을 통틀어 또는 모든 주들의 아부를 일삼는 자와 교활한 자들은 발견 되는대로 경멸을 받을 것이며, 그러한 정신은 한 번도 속아본 적이 없고 속을 수도 없고, 그 정신이 승낙한 사랑 없이 변성함은 오직 악취 나는 입김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은 지구의 어느 대륙에서도 결코 성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성이나 위성이나 별, 소행성, 아주 작은 우주의 부분, 조밀한 인구의 한 가운데, 바다의 축축한 습기, 아기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 인생의 변화, 죽음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을 따르는 상태, 성장의 중지,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본능적으로 진실을 미워하는 존재는 성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극히 기울여야 할 조심과 신중성, 가장 건실한 유기체의 건강, 어머니와 아이들을 위한 대망과 비교와 자애, 커다란 영향력과 파괴력은 우연성, 자연적 조화의 완벽한 직감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건들에 적용된 평등 정신의 타당성, 이러한 것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장 위대한 시인의 부분으로, 두뇌의 세계에 떠오른 부유물로 부름을 받는 것이며,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루어지는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조심성은 거의 사라졌다. 그것은 신중한 시민들이 그 스스로 단단한 획득물로 사용했고 스스로와 가족을 위하여 잘 실천했으며, 의구심과 범죄 없이 합법적인 인생을 완성한 시민들이었다. 가장 위대한 시인은 음식과 수면의 경제를 관찰하듯이 이러한 경제성을 관찰하고 허용한다. 그러나 그가 걸쇠 잠긴 문에 거의 주의를 기울

이지 않을 때 기울이는 생각보다 더 많게 신중한 생각을 한다. 인생의 신중성에 대해 언급한 전제는 그것의 환대나 교접하는 것이나 그것의 수확물이 아니다. 그밖에 저축을 위하여 모아둔 적은 양의 돈, 그리고 주변의 많은 통만드는 참나무 판자와 혼자서 소유한 많은 미국의 땅과 그 해의 부족한 옷감과 식량을 보충하기 위한 여유 돈과 사람이 치켜올린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자포자기하여 우울한 사려분별과 그들이 불태운 나날들과 얼어붙게 만든 밤들과 함께 돈을 벌기 위하여 피땀 흘린 여러 해, 답답한 책략과 도피, 아주 작은 응접실, 다른 사람들이 굶주리는 동안 부끄럼 없이 배를 채웁, 개화기의 상실과 흙과 꽃과 공기와 바다의 냄새와 지나치는 혹은 젊은이나 중년들과 함께 하며 맛보게 되는 진실, 치솟는 메스꺼움과 고상하거나 소박함 없이 밀어닥친 인생의 절망적인 반란, 화창함이나 장엄함 없이 죽음에 수없이 재잘거림, 이러한 것들은 현대문명이 낳은 위대한 사기꾼이며 부정하기 어렵게 설계된 문명의 외관과 구조를 얼룩지게 만든 의도이다. 그리고 펼쳐진 그 거대한 모습은 눈물로 젖어서 축축하고 영혼에게 키스하기 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된다. 그러나 정의로운 의미는 신중성에 의해 만들어져 남아 있다. 단순히 행복에 대한 신중성과 가장 존경할 만한 삶을 갖고 있는 명사들은 세계를 관조하는 시야 안으로 서서히 나타난다.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적절한 신중성의 사상이 크고 작은 이슬방울 모양의 보석으로 만들어 늘어뜨린 장식처럼 조용히 곁에 있을 때. 한 해 또는 칠팔십 년 동안의 허락을 각 세대에 의해 일정한 간격으로 지혜로 채우는, 힘차게 보강된 어느 시대와 풍요로운 선물과 당신 쪽으로 흥겹게 달리고 있는 모든 방향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결혼식에 초대된 손님들의 깨끗한 얼굴과 같은, 그러한 지혜는 무엇인가? 정신은 오직 그 스스로이며, 모든 것은 뒤이어 일어나는 증명서일 뿐이다. 사람들이 행하는 또는 생각하는 모든 것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움직임은 하루 한 달 직접적으로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나 죽은 뒤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일생 동안의 앞뒤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한다. 간접성은 항상 중요하며 직접성과 마찬가지로 사실적이다. 그 정신은 그것이 육신에게 주는 만큼과 똑같이 육신으로부터 되받는다.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성교 후의 쓰라림이나 얼룩, 자위하는 사람의 프라이버시, 열성가나 술고래들의 타락한 기질, 유부녀를 타락시키는 음흉한 해독뿐만 아니라 유부녀를 바보로 만들고 매음케 하고 젊은 사내들을 타락시키

고 망신스러움을 얻어 이룩케 하고 사람들에게 거칠게 대하는 관료, 죄수를 대하는 판사, 자식을 대하는 아버지, 아버지를 대하는 자식, 아내를 대하는 남편, 부하를 대하는 두목뿐만 아니라, 탐욕스러운 얼굴이나 악의가 있는 소망, 사람들에게 의해 꾸며진 어느 공간이 앞에 언급한 사람들에게 덮어씌워지고, 현재의 또는 앞으로 그 계획된 공간에 의해 짓밟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연히 실현되고 반복되고 또 그 실행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이다. 동정심의 분발이나 개인적인 힘이 심원한 이성보다 더 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가까이 또는 멀리 논쟁을 불러들일지도 모른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다. 더 붙이거나 빼거나 나누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사람의 크고 작음, 배웠거나 무지하거나, 흑백,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첫인상은 마지막 인상으로 이어지는 숨통이며 남녀 모두가 활발하고 인자하고 청순함은 보편적으로 확고부동한 이치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다. 그 전체적인 질서는 영원하다. 만약 야만함과 흉악함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가장 위대한 시인과 학자가 단순히 같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대통령과 대법관이 같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젊은 수리공과 농부가 더 할 나위 없이 같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매춘이 더 할 나위 없이 슬기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흥미로움은 잃었던 의식이 서서히 드는 것과 같이 일어날 것이다. 모두가 의식을 회복하루 것이다. 전쟁과 평화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은 모두가 친척과 낯선 사람과 가난한 자와 노인과 슬픔에 찬 사람과 젊은이와 미망인과 병자와 모든 도피자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모든 탈주자들을 조장하는 것과 노예들의 탈주, 곳곳이 서서 멀리 난파선에서 살아 나와 사람들이 구명보트의 자리를 서로 빼앗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극기심, 모든 본질을 제공하거나 훌륭한 노련한 이유를 갖고 있는 인생, 또는 친구가 살아가는 이유나 여론의 동기, 이웃에서 조롱 받는 열성가들의 모든 고통, 그 웅대하고 달콤한 사랑과 어머니들이 겪는 고귀한 경험, 우리가 상속받은 사료(史料)의 파편들로 만들어진 몇몇 고대 국가들의 모든 장점, 보다 강력한 다수의 장점들과 이름과 시간과 위치가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고대 국가들, 성공했던지 못했던지 일찍이 썩썩하게 출발했던 모든 국가,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성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의 신성함이나 그의 위대한 손에 의해 만들어진 모습으로 암시되었던 어느 시대, 그리고 모든 것이 지구의 표면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나날들을

잘 생각하고 행한다. 또는 떠도는 어느 별이나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처럼 이들에 의해 정착한 별들, 이후에 존재하는 것이면 누구에게서든지, 또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잘 생각하고 행해질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들의 시대에 단련되었고 현재 단련되고 그들이 도약했거나 앞으로 도약할 것으로 항상 동질성을 익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단지 그 순간을 살았던 그들의 어느 것을 추측해 낼 수 있는가? 세계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 명백한 부분이 아니며 불분명한 존재도 아니다. 그 길고 오랜 선행의 결과 없이 현존의 결과는 없는 것이며 가장 먼 미래에 언급할 만한 지점이 어느 다른 지점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뒤로 역행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정신은 진실하다는 것을 무엇이든지 만족시켜 준다. 가장 위대한 시인의 사려분별은 마지막으로 열망에 담하고 정신을 포식하고, 만약 그들이 그 길을 따른다면 사려분별 없이 경멸하지 않고, 아무 것도 버리지 않고 자신의 경우이거나 어느 경우에도 중단을 허락하지 않고, 특별한 안식일이나 최후의 심판일이 없고, 죽음으로부터 삶을, 불의로부터 정의를 분리해내는 일이 없다. 현재에 만족하고 서로의 상관성에 의해 모든 사상과 행동이 짝을 이루고, 용서가 불가능하거나 헛값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안다. 청년은 태연히 그의 인생에 목숨을 걸고 그 스스로 곧잘 엄청난 것을 잃는다. 그의 일생에 목숨을 걸고 부유함 속에 노년을 안주케 하고 그 안락이 그 스스로를 위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아무 것도 없음을 알게 되는 동안. 그리고 생명이 긴 것들을 좋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사려분별을 배울 필요가 없으며, 육체와 정신이 같음을 알아차리고, 간접적인 것이 분명히 직접적인 것을 뒤따르고 그가 행하는 어떠한 악이나 선이 그를 앞질러 가서 다시 그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위급할 때에 서두르거나 죽음을 피하지도 않는다.

오늘날은 가장 위대한 시인이 직접적으로 겪어야 할 시련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가 광막한 대양의 파도처럼 바로 이 시대와 함께 스스로를 범람하지 않게 한다면, 만약 그가 자신만의 영지인 육신과 영혼을 자신에게로 유인하지 않는다면, 그의 목에 비할 데 없이 고귀한 사랑을 매달고 유태인 같이 단단한 근육을 그러한 장점과 단점 속으로 내던지지 않는다면, 만약 그가 스스로 변형된 시대를 만들지 않는다면, 만약 그에게 모든 시대와 장소와 과정과 생명력이 있거나 생명력이 없는 형식들과 유사하게 하는 영원성을 개

방하지 않는다면, 그 형식은 시간의 빠이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호함과
 유영하고 있는 오늘날의 형상 속에서 솟아오르고 유순한 인생의 닳에 묶여
 있으며 현재의 시점을 과거로부터 미래로 가는 통로로 만들고 1시간이라고
 하는 파도와 60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파도의 아이들로 표현하는 스스로에
 몸을 맡기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스스로를 그러한 일반적 경향 속에 융합시
 켜 스스로의 성장을 기다려라. 그래도 시나 어떤 성격이나 작품에 대한 마지
 막 시험이 남아있다. 통찰력이 있는 시인은 여러 세기에 걸쳐 스스로의 모습
 을 투영하고 한 시대가 지나간 뒤에도 인생의 연기와 연기를 비판한다. 그
 비판은 연기자들과 함께 살아 숨 쉬고 있는가? 그가 묻힌 뒤에도 오래도록
 믿어질 수 있는가? 젊은 사내가 종종 그를 생각해 줄 수 있겠는가? 젊은 계
 집이 그를 종종 생각해 줄 수 있겠는가? 중년과 노인들도 그를 생각해 줄
 수 있겠는가?

위대한 시인은 세대 간에 공유하는 것이며 모든 신분과 얼굴색과 모든 부
 문과 종파와 사내만큼 계집과 계집만큼 사내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위대
 한 시인은 남녀에게 최후가 아니라 시작이다. 마침내 어느 지당한 권위를 갖
 고 앉아 어느 설명으로 밝혀진 의미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깨닫고 흡족하고
 충만하다고 생각해본 사람이 있을까? 위대한 시인은 그러한 종점으로 데려
 가지 않는다. 그는 중단도 보호받는 비탄과 안락도 가져오지 않는다. 그가
 붓을 들어 쓴 시는 행동 속에 살아 움직인다. 그가 포용하고 있는 사람을 그
 는 꼭 끌어안고 이전에 이르지 못했던 생생한 영역으로 데려간다. 거기서부
 터는 안락이 없다. 위대한 시인이 데려간 그들은 죽은 공허 속의 낡고 바랜
 얼룩과 빛을 되살려 만든 우주와 신성한 광채를 보게 된다. 그들의 반려들은
 별들의 탄생과 진행과 의미를 배운다. 이제 소란과 혼돈 속에서 응집되어 나
 온 한 인간이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이 먹은 사람은 젊은이를 격려하고 인생
 의 묘방을 가르쳐 줄 것이다. 구세대와 신세대의 두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가
 스스로 궤도를 맞추고 보다 더 작은 별들의 궤도 위에서 태연히 계속 원을
 그리며 날아가 우렁찬 소리가 끊어 없을 때까지 겁 없이 전진케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성직자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일은 끝났다. 그
 들은 잠시 기다릴지도 모른다. 아마 한 세대나 두 세대를. 신분을 잃을는
 지도 모른다. 그들의 지위는 보다 더 좋게 조성될 것이다. 질서와 조화로 이
 루어진 한 무리와 예언자들이 일시에 그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질

서가 생기고 그들이 인간을 구제하는 성직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을 구제하는 성직자가 될 것이다. 그들의 영향 아래 세워지는 교회들은 선남선녀들의 교회가 될 것이다. 그들 스스로의 신성함을 통하여 조화로운 세계와 새로운 시인들이 탄생함은 사람들과 사건들과 사물들의 통역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의 실상(實相) 속에서 과거와 미래의 조짐과 영감을 발견케 될 것이다. 그들은 영원성이나 신이나 사물의 완전성이나 자유나 최고미와 영혼의 실재를 옹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미국 안에서 일어나 그 땅의 유물로부터 감응을 받게 될 것이다.

영어는 웅장한 미국적 표현에 편을 든다. 그 표현은 충분히 강건하고 유연하며 충만하다. 모든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비축된 그 튼튼한 특성은 결코 정치적 자유의 이념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자유의 아니무스(animus)²⁾이다. 그것은 보다 우아하고 명량하며 미묘하며 보다 더 고상한 언어이다. 그것은 저항적이며 강력한 언어이다. 그것은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방언이다. 그것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연설이며 침울한 특성도 갖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성장 신뢰 자긍심 자유 정의 평등 우정 도량 사려분별 결심과 용기로 표현되는 일종의 선택된 언어인 것이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과 거의 같은 것으로 표현되는 영매(靈媒)이다.

위대한 문학은 행동이나 웅변 사회적 고통 수신제가(修身齊家) 공중도덕이나 고용된 사람들의 고용주에 의해 받는 대우의 스타일과 같은 것이 아니다. 실천 명령, 육군이나 해군의 행동 명령, 입법 사법 경찰 교수 건축 노래 위락의 정신이나 젊은이들의 복장과 같은 것이 아니며, 미국인이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질투심과 걱정의 본능을 오래도록 감추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민중의 입으로 표현되는 기호가 아니라, 무심코 지나친 뒤에 모든 자유인의 가슴에 생생히 살아있는 의문이 고통치고 있는 것이거나, 이것이 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그것은 내 조국과 함께 한결같이지는 것인가? 그것은 수치스러운 차별 없이 정돈되는 것인가? 그것은 숙성한 형제들과 연인들을 위한 것인가? 크고 잘 결합된 구형식의 자긍심, 또는 모든 형식과 잘 어울리는 관대함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들에서 신선하게 자란, 오늘 방금 요리하기 위하여 바다에서 건져 올린 그 무엇인가? 나는 안다. 내게

2) 여성의 억제된 남성적 특성

쓸 만한 것을. 미국인이라면 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반드시 쓸 만한 것, 육체의 한 부분에 쓸모가 있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답할 수 있는가? 보편적 요구에는 언급이 필요 없는가?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미개발사회의 욕구를 싹트게 할 수 있는가? 위락의 남은 욕구가 현대 과학과 형식에 의해 자리 잡혀질 수 있는가? 들어서 알다시피 기지의 자유와 절대 인식은 생사를 위해 하잘 것 없는 것에 예측될 수 있는가? 그것은 외모가 준수하고 성기가 큰 사내를 양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계집은 완벽하고 독립심이 강한 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젊은 공화국의 유모인가? 그것은 수많은 어린이들의 어머니 가슴에 달려있는 젖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젖을 쉽사리 나오게 할 수 있는가? 전에는 신선했던 관용과 공명정대가 이제는 너무 낡아 버렸는가? 마지막으로 태어나는 것과 위업의 달성 쪽으로 굳혀진 이들과 모험적 편력과 자신의 외부로부터 급습하는 모든 힘을 경멸하는 사람들과 동등한 사랑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는가?

다른 시들로부터 추출해낸 시들은 아마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 비겁자는 틀림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생명력이 있고 위대함에 거는 기대는 오직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과 위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실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 번쩍번쩍 윤을 내며 비난을 퍼붓는 무리들과 비평가와 암전을 빼는 상류층은 동등 떠다니며 아무런 기억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전언을 갖고 온 방문객들을 침착과 호의로써 맞아들일 준비를 한다. 그들이 보증되고 환영받는 것은 지성으로서가 아니다. 재능 있는 사람, 예술가, 영리한 사람, 편집인, 정치가, 박식한 사람, 그들은 진가를 인정받는다. 그들은 적재적소에 앉아 자신의 일에 충실한다. 국가의 정신 또한 그러한 노동을 하는 것이다. 어떠한 위장도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 숨겨질 수도 없다. 아무 것도 거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한다. 오직 그 스스로 만큼 훌륭한 사람을 위하여 반쯤 전진할 것이다. 개인은 최고의 국가를 만들어낸 자질을 소유하고 있을 때 국가만큼 훌륭해질 것이다.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자긍심이 높은 국가의 정신은 시인들의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반쯤 마중을 나가도 좋을 것이다. 신호를 보내는 것은 효과적이다. 실수 할까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만약 시인이 진실하다면 국가도 진실하다. 한 사람의 시인을 증명해주는 것은 그가 그의 조국을 흡수 동화시켰듯이 그의 조국이 그를

자애롭게 흡수하여 동화시키는 것이다.

휘트먼 (Walt Whitman)

본명은 Walter Whitman. 1819. 5. 31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 웨스트힐스~1892. 3. 26 뉴저지 캠던. 미국의 저널리스트·수필가·시인. 시집 「풀잎 Leaves of Grass(1855 초판)」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매우 혁신적이었으며, 이 작품으로 그는 미국 문학에서 혁명적인 인물이 되었다. 예를 들면 「풀잎」에 들어 있는 “나는 몸의 흥분을 노래하네. I Sing the Body Electric”는 인체의 아름다움과 육체적 건강, 성욕을 강하게 표현했다.

초기생애; 휘트먼은 17세기 전반에 미국으로 이주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목수인 아버지는 농사에 실패하자 1823년 가족을 데리고 롱아일랜드에서 브루클린으로 이사했다. 휘트먼은 5년간 1825~1830 공립학교를 다닌 뒤 4년 동안 인쇄소 사환으로 일했다. 1835년 뉴욕에서 식자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1년 뒤에는 교사로 일하다가 1838년 헌팅턴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롱아일랜드 Long Islander」를 편집했지만, 1840년 마틴 밴 뷰런의 대통령 선거 운동에 참가했고, 잠시 교직에 있다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 인쇄 일을 했다. 1842~1844년에는 일간지 「오로라 Aurora」와 「이브닝 태틀러 Evening Tattler」지를 편집했다. 1845년 다시 브루클린으로 돌아가 「롱아일랜드 스타 Long Island Star」에 기고했으며, 1846~1848년에는 「브루클린 데일리 이글 Brooklyn Daily Eagle」을 편집했으며 1848~1849년에는 「브루클린 위클리 프리먼 Brooklyn Weekly Freeman」을 편집했다. 1848년에는 약 4개월 동안 뉴올리언스의 「크레센트 Crescent」에서 일하다가 미시시피 강과 오대호를 거쳐 돌아왔다.

1850~1854년에는 인쇄소 겸 문방구를 경영하고 주택건축과 부동산투기에도 관여했다. 휘트먼은 뉴욕 시와 롱아일랜드에서 거의 36년을 보내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관찰했으며, 자주 극장에 들러 셰익스피어 극을 보았고, 음악 특히 오페라(그는 “오페라가 없었더라면 결코 「풀잎」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음)에 대한 열정을 키우게 되었다. 그는 톰 페인의 작품을 읽었고, 급진적인 퀘이커교 전도사인 엘리어스 힉스의 영향을 받았으며, 매우 합리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또한 호메로스·성서·셰익스피어·콜리지·디킨스 등을 폭넓게 읽었고, 제임스 맥퍼슨이 번역한 계

일 시인 오시안의 시에 감동을 받았으며, 특히 월터 스콧 경에게 깊은 흥미를 갖게 되었다. 1855년 출간된 「풀잎」의 초판에는 출판사와 작가의 이름도 없이 표지에 휘트먼의 초상이 실려 있었다. 「풀잎」에 들어 있는 시들은 미국 시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그들로 하여금 넓고 관대한 정신을 가질 것과 통일된 영혼과 육체를 지니고 정치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새로운 민족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인은 고독했지만 주위의 일상생활에 참여했으며, 사람들에게 “세계의 지붕 위에서 원시적으로 외치는 소리”를 들려주었다. 에머슨은 이 시들을 보자 이것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온 것들 중 “채치와 지혜가 넘치는 가장 비범한 작품”이라고 그에게 편지를 썼다. 휘트먼은 개인 노트에서 자신의 고유한 문체를 계속 연습해오다 1856년 여러 차례 고쳐 쓴 끝에 「풀잎」의 2번째 판을 냈다. 이 시집에는 초판에 실린 시들을 수정한 작품들과 “일몰 시(詩) Sun-down Poem(뒤에 “브루클린 나루터를 건너며 Crossing Brooklyn Ferry”로 바뀜)”라는 제목의 여러 편의 새로운 시가 들어 있었다. “잎 떨어지는 것들(Leaves-Droppings)”이라는 부분에 실린 평론에는 그가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평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작품에 대한 몇몇 평론도 들어 있었다. 이 익명의 평론들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진정한 “미국 최후의 음유시인”이라고 서술하고, 자신을 “자연 그대로의 인간”으로 선언했으며, 육체와 성(性)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자신의 문체가 초월적이고 새롭고 활기에 넘치며, 자신의 시는 미래를 지향하고 있고, “오만한 무명인사”인 자기 자신은 단지 일련의 미국 시인들에게 출발점을 주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857~1859년 휘트먼은 「브루클린 타임스 Brooklyn Times」를 편집했으며, 생활방식은 자유분방해졌다. 「풀잎」의 3번째 판이 보스턴의 한 출판사에서 출간된 1860년까지의 이 시기는 “난폭하고 세속적이고 관능적이며, 먹고 마시고 여자들과 놀아난 ‘나’의 시기였다. 1860년판 시집에는 그의 생애에서 다소 강한 개인적 위기, 즉 명백한 동성애적인 연애사건(그것이 허구인지 사실인지는 알려지지 않음)을 기록한 “창포(Calamus)”라는 시들과, 종종 이 시인의 힘을 고갈시킨 격렬한 감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예감 Premonition(뒤에 “포마녹에서의 출발 Starting from Paumanok”로 바뀜)”이 들어 있었다. “바다에서 나온 말 A Word out of the Sea(뒤에 “끝없이 흔들리는 요람 밖으로 Out of the Cradle Endlessly Rocking”으로 바뀜)은 “내가

생명의 바다와 함께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As I Ebb'd with the Ocean of Life”와 마찬가지로 약간 침울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민주주의의 노래 Chants Democratic”·“아담의 어린시절 Enfans d'Adam”·“전령이 떠나다 Messenger Leaves”·“생각들 Thoughts”은 좀 더 이 시인의 초기 기질을 띠었다.